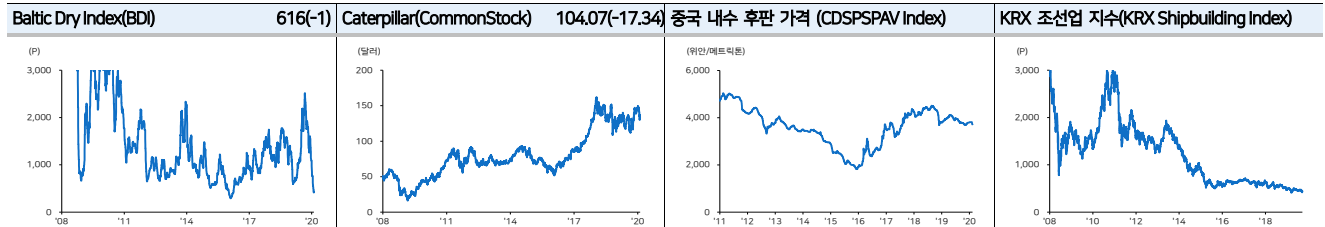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9	20E	19	20E	19	20E
현대중공업지주	4,079.8	19.1	250,500	-5.6	-17.6	-22.6	-25.9	11.3	8.0	0.5	0.5	4.6	6.1
한국조선해양	6,857.9	17.1	96,900	-9.0	-19.6	-20.6	-23.4	32.0	28.1	0.6	0.6	1.9	2.0
삼성중공업	3,376.8	18.0	5,360	-12.1	-20.4	-23.0	-26.3	-3.2	308.4	0.6	0.6	-16.0	0.3
대우조선해양	2,208.4	12.3	20,600	-7.2	-18.1	-23.8	-26.0	33.0	29.8	0.6	0.5	1.7	1.7
현대미포조선	1,310.1	11.9	32,800	-10.1	-22.5	-26.6	-28.8	15.2	14.0	0.6	0.5	3.7	3.9
한진중공업	368.1	20.7	4,420	-6.7	-0.7	-7.4	-11.3	N/A	N/A	N/A	N/A	N/A	N/A
한국항공우주산업	2,407.6	18.6	24,700	-4.8	-21.1	-29.5	-27.5	11.0	13.7	2.0	1.9	19.2	14.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379.2	21.1	26,750	-5.1	-21.2	-28.2	-23.7	11.1	11.7	0.6	0.5	4.9	4.8
LIG넥스원	554.4	4.7	25,200	-4.5	-14.6	-23.2	-20.3	N/A	N/A	N/A	N/A	N/A	N/A
현대로템	1,126.3	3.8	13,250	-4.0	-16.4	-10.5	-15.1	-6.1	557.8	1.3	1.4	-19.2	0.1
현대엘리베이터	1,525.9	22.7	56,100	-2.3	-11.1	-15.5	-17.9	30.8	18.1	1.6	1.5	5.0	8.6
두산중공업	1,159.8	6.1	4,710	-5.4	-15.3	-11.3	-17.7	-13.2	26.0	0.3	N/A	-3.4	N/A
두산밥캣	2,756.9	25.9	27,500	-3.3	-9.1	-14.1	-19.9	9.2	8.6	0.7	0.7	7.8	8.0
두산인프라코어	815.0	14.7	3,915	-6.1	-21.1	-25.1	-29.5	3.1	3.1	0.4	0.3	12.6	10.3
현대건설기계	387.1	10.1	19,650	-5.3	-20.3	-30.6	-34.3	5.7	5.2	0.3	0.3	5.1	6.3
현대일렉트릭	311.1	5.3	8,630	-5.8	-24.0	-3.5	-25.3	-1.8	166.8	0.3	0.4	-14.2	-0.6
하이룩코리아	177.0	45.9	13,000	-6.8	-19.3	-22.0	-32.3	N/A	N/A	N/A	N/A	4.5	4.8
성광벤드	217.1	18.9	7,590	-7.2	-19.2	-21.8	-26.7	29.2	26.0	0.5	0.5	2.4	2.6
태광	214.1	15.1	8,080	-10.0	-21.6	-17.8	-20.8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28.8	3.9	8,480	-13.6	-20.4	-11.9	-19.6	14.3	7.0	2.4	1.8	19.7	30.6
한국가본	317.4	13.4	7,220	-8.8	-10.9	-1.9	-7.8	26.2	9.5	1.0	0.9	4.3	10.0
태웅	132.8	4.2	6,640	-4.6	-14.3	-22.6	-25.3	N/A	N/A	N/A	N/A	N/A	N/A
HSD엔진	115.5	3.0	3,505	-6.3	-20.2	-16.7	-21.6	-4.7	21.1	0.6	0.5	-11.1	2.7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God must be a shipowner' as rising demand means 160 more VLCCs needed

노르웨이의 선주 Hunter Group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증가할 원유 생산분을 수송하기 위해 160척의 VLCC 신조물량이 필요함. 현재 전세계 대형 탱커의 수주잔고는 60척이며 이는 전체 선박량의 7.7%(역사상 저점)에 불과하고 향후 운임의 폭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중국, 수출 몇 주 내 정상화

중국의 수출은 몇 주 내에 정상화되어 3월 말부터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도 늘어나기 시작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올해는 예년과 달리 중국 춘제 이후, 물량 출하의 정상화와 운임 회복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2020년 연간 물동량은 전년대비 증가세를 기대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중국, IMO2020 단속에 어려움

COVID-19사태로 중국의 개방형 스크러버 단속이 어려워졌다고 보도됨. 계획대로라면 3월 1일부터 중국 연안 12마일 수역 내에서는 스크러버 장착 선박이라고 고유황유 사용을 금지하고 허가 없이 고유황유를 수송하거나 영해 내에서 스크러버 세척수를 배출하는 것도 단속할 예정이었음. (선박뉴스)

석유개발 관련 기업들 긴장

사우디가 경쟁 산유국들을 향해 유가 전쟁을 선포했다는 Financial Times의 보도가 나왔으며, OPEC의 전략 변화가 심해 유전 개발 업체 등에 최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시장 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됨. 한편 이번 사우디의 전략 변화는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도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삼호중공업, 사모채 발행으로 1,500억원 조달키로

현대삼호중공업이 9회차 사모채를 발행해 1,500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트랜치 2년물 300억원과 2년 6개월물 1,200억원으로 구분했다고 보도됨.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이번 9회차 사모채의 신용등급과 아웃룩을 'BBB+안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그리스 상선 증가세 멈칫

그리스의 상선 선박량 증가세가 2년째 지지부진하다고 보도됨. 2013~2018년동안 전체 선복량이 3분의 1정도 증가했던 데 비해 최근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현재 그리스 선대는 3,968척, 3.41억DWT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증가세 둔화의 가장 큰 요인은 드라이벌크 선대 감소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본 조사는 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의 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의 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외 배포 될 수 없습니다.